

# 사회적 관계들과 타인의 특성들에 관한 추론의 방향과 확신성

홍대식

성신여대 심리학과

대인관계들과 타인의 특성들의 추정과 추정의 확신도판단에 관한 네 개의 가설이 검증되었다. 태도일치여부 정보에서 P/O관계의 추정, P/O나 O/P관계에서 태도일치여부의 추정, P/O나 O/P관계에서 타인의 특성 추정, 타인의 한 특성에서 다른 특성의 추정 및 P/O나 O/P관계에서 O/P나 P/O관계의 추정의 다섯개 상황들에서 추정의 방향과 주관적 확신도에 관한 측정치들이 얻어졌다. 가설 1(추정의 동일한 방향과 극화)은 예측방향과 극화(또는 정도)를 취급하고 있는데, 다섯 개의 모든 상황들에서 지지받았다. 가설 2(긍정성-확신성과 부정성-불확신성)도 다섯개의 모든 상황들에서 지지받았다. 가설 3(호오관계의 극화-확신성증가)은 네 개의 상황에서 지지받았고 마지막의 상황에서 지지받지 못했다. 가설 4(확신성에서 긍정성-극화차이 있음과 부정성-극화차이 없음)은 세 개의 상황에서 지지받았고 두 개의 상황에서 지지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구방법(즉, 특성선택)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P/O관계에서 O/P관계의 추정은 O/P관계에서 P/O관계의 추정보다도 추정의 호오도가 더 상호적이고, 더 확신도가 높았으며, 정·부관계간의 확신도 차이가 더 적었다.

대인관계의 기본 구조가 개인(P), 타인(O) 및 어떤 대상(X)의 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가정되었고 이러한 구조의 균형이나 불균형 조건들이 규정되어 왔다(Heider, 1946, 1958; Newcomb, 1953, 1959). Heider(1958)의 P-O-X 구조들에 대한 균형과 불균형은 세 관계의 인지들의 부호에 기초되어서 규정되었다. 한편, 홍대식(1985)은 P-O-X 구조들이 심리적으로 P/O 관계에 대한 인지와 P와 O사이의 태도의 일치-불일치의 요인들로 분석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P-O-X구조들에 대한 인지적 반응들(즉, 예상, 추측 또는 기대)은 두 요소의 부호나 성질의 합치여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감정적 반응들(유쾌도, 긴장도 및

변화도의)은 P/O관계의 정부, 태도의 일치여부 그리고 이 두요소의 합치(또는 갈등)여부의 합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O-X 구조들을 포함해서 P와 O간의 대인관계에 관한 두 개의 인지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둘 것이다. P와 O간의 대인관계에 관한 인지들은 매우 광범할 것이므로, 대인관계상 으로나 이론상으로 중요한 몇개의 인지들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P/O관계(또는 O/P관계)의 정부(正負)와 태도 일치여부, P/O 관계(또는 O/P관계)의 정부와 O의 특성, O의 한 특성과 다른 특성, P/O관계의 정부와 O/P관계의 정부에 관한 두 개의 인지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 본 연구의 자료처리를 도와 준 이종구 선생과 김보슬양에게 사의를 표한다.

Heider(1958)와 Newcomb(1968)이 취급한 P-O-X의 상황들을 P/O관계의 정부와 태도 일치여부의 두

개의 요소들로 분석하고 있는 홍대식(1985)의 시도는 결국 Osgood 등(1957)과 Festinger(1953)의 이론과 직결되어있다. Osgood 등(1955)은 두 개의 대상에 대한 태도들이나 인지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면 두 개의 평가치들이 어떤 평형점을 향해서 모두 이동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결국 두 개의 인지들이나 태도들이 연관되게 될 경우에 두 개의 인지들의 평가치들이 동일하거나 동질적인(homogeneous) 방향으로 이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Festinger(1957)의 이론은 두 인지요소들이 관련이 있을 때에 서로 조화되는 요소들은 변화되지 않지만 부조화되는 요소들은 둘 중의 한 요소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의 이론에서는 변화의 부호나 방향만을 취급하고 있고 변화의 크기나 정도를 정확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 P-O-X 구조들을 P/O간의 관계의 호오와 태도일치여부의 요소들로 분석할 때, 이들 상황을 인지적 일관성에 관한 세 개의 이론들의 어느것에 의해서라도 부분적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두 개의 인지들의 평가적 차원, 즉 인지들의 정적(positive)이거나 부적(negative) 속성 면에서 인지일관성 이론들은 모두 두 요소들간의 부호의 동질성이나 동일성을 가정하고 있다. 예컨대, P-O-X 구조들에서 긍정적 P/O 관계는 태도일치와 결합되거나 연관될 때에 인지적 균형이나 조화를 이루며, 부정적 P/O관계는 태도불일치와 결합되거나 연관될 때에 조화를 이루게 된다(홍대식, 1985 참조). 한편, 인지들의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에 세 개의 인지일관성이론들은 정확한 진술을 하고있지 않지만, Osgood(1955)의 이론은 아마 동일한 정도의 극단성이나 정도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원적(P-O-X) 상황들에서의 P/O관계의 호오와 태도일치여부 사이 뿐만 아니라 P/O관계의 정부와 O의 특성 추론의 정부 사이 등에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인지들이 동일한 극화(polarization)나 극단화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볼때, P-O-X 구조에 관한 한 개의 인지나 O의 특성에 관한 한 개의 인지의 제시는 그 인지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방향과 동일한 인지를 추론하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동일한 극화정도를 갖는 인지나 관계를 추론하게 될 것이다(이것, 즉 추정의 동일한 방향과 극화가 본 연구에서 검증될 첫번째 주요 가설임).

P-O-X에 관련된 인지들간의 관계이건 개인적 특성들에 관한 인지들간의 관계이건 간에, 특정의 인지(또는 관계)에서 다른 인지(또는 관계)를 추론하는 상황에서 고려해야만 되는 중요한 변인은 추론의 주관적 확신성(subjective certainty)이다. 홍대식(1988, 1989)의 연구들에서는 P-O-X 구조들상에서의 누락된 한 관계를 예측하도록 하였고 +와 -관계들의 조합에 따른 예측의 확신성을 측정된 바 있으며, ++조합이 +-, -+ 또는 --조합들보다 더욱 균형방향으로 누락된 관계가 추론되었으며, 추론의 주관적 확신성도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회적 관계나 개인적 특성에 관한 한 인지에서 관련된 다른 사회적 관계나 특성을 추론할 경우에, 그 추론의 확신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부호나 속성의 극화도 요인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의 사회적 관계나 개인적 특성의 긍정성과 부정성은 관련된 또 다른 관계나 개인적 특성의 추론(예컨대, P/O 관계에서 O/P 관계의 추론)에 관한 주관적 확신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의 기본적 이유나 방향은 인간의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적응의 성질들을 분석함으로써 시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들에서(예; + P/O 관계) P는 O에 대해서 접근하고 관심을 가지며 상호작용들이 유쾌하다. 따라서 긍정적 관계의 상황들은 적응상의 문제가 별로 없는 단순하고도 유쾌한 상황이다. 또한 개인적 특성의 면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접근하고 관심을 가지며 그 사람과의 경험 역시 유쾌하다. 결국, 긍정적 특성이나 사회적 관계의 상황들은 단순하고 경험의 결과가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며, 긍정적 상황이나 특성에 관련된 다른 긍정적 상황이나 특성의 추론의 확신성은 높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들에서(예; -P/O 관계) P는 O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피하고자 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들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나 부정적 특성을 지닌 인물들에 대한 적응은 회피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관계나 특성들 속에는 긍정적인 관계나 특성들이 내재되어 있으며(예컨대, 부정적인 "흥악법"이라도 인간적인 "인정"이나 "의리"가 있을 수 있다), 사회적 규범이나 상황은 부정적 관계들이나 부정적 특성의 인물들에게 접근하고 대면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특성이나 관계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부정적 특성이나 관계의 추론은 확신성이 낮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Newcomb 등(Price, Harburg 및 Newcomb, 1966)의 분석에서도 이미 제시된 바 있다. Price 등은 긍정적 P/O관계가 포함된 상황들보다도 부정적 P/O관계가 포함된 상황들에서 상황에 대한 불확실감(uncertainty), 양면감정성(ambivalence) 및 비관여(noninvolvement)가 더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나 긍정적인 특성(예컨대, + P/O관계나 태도일치상황)에서 관련된 다른 관계나 특성을 추론할 경우보다는 부정적인 사회관계나 부정적 특성에서 관련된 다른 관계나 특성을 추론할 경우에 추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게 될 것이다(이것, 즉 긍정성-확실성과 부정성-불확실성 관계가 본 연구의 두번째 가설임).

대인관계나 타인의 특성이 강한 호감이나 오감일 경우에는 약한 호감이나 오감일 경우보다도 더 강하고 특출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인지 분야에서 특출한 자극은 가장 많은 주의를 끌며(McArthur, 1981), 인과적으로 강력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지각되며(Taylor와 Fiske, 1975), 인상의 조리성을 증가 시킨다(Taylor, 1981)는 것이 발견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추론이나 타인의 특성의 추론에서도 강한 관계나 크게 극단화된 특성이 약한 관계나 덜 극단화된 특성보다도 추론의 확신성이 다 클 것이라고 가정하였다(이것, 즉 호오관계의 극대화-확실성 증가관계가 본연구의 세번째 가설임).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나 특성에 부수되는 불확실감요인은 긍정적 및 부정적 관계나 특성의 추론시에 그 관계나 특성의 정도나 극화도(polarization)의 영향을 제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관계들이나 특성들에서 관련된 다른 관계들이나 특성을 추론할 경우에는 그것들의 극화도가 클수록 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관계들은 접근과 쾌감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지므로 극화도가 커질수록 이러한 성질을 증가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인 관계들은 회피와 무관심을 일으키는 것과 접근과 관심을 일으키는 갈등적 상황이고 이 갈등적 성질이 압도적 영향을 주어서 부정적 관계들에서 추론하는 상황들에서는 관계나 특성의 극화도가 차이있는 확신성을 일으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 관계나 특성에서의 추론은 긍정적 관계나 특성에서의 추론보다는 관계나 특성의 극

화도의 차이가 적을 것이다(이것, 즉 긍정성-극화차이 있음과 부정성-극화차이 없음이 본 연구의 네번째 가설임).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태도 일치여부의 상황에서 P/O관계의 호오 추론, (2) P/O(또는 O/P)관계의 호오에서 태도일치여부의 정도의 추론, (3) P/O(또는 O/P)관계의 호오에서 O의 호오 특성의 추론, (4) O에 대한 호오 특성에서 다른 호오 특성의 추론, (5) P/O(또는 O/P) 관계에서 O/P(또는 P/O)관계의 추론 상황들에서 본 연구의 네 개의 기본가설들을 검증하는 것이다. 첫번째와 두번째의 상황들은 P-O-X 상황들의 두 요소, 즉 P/O호오관계와 태도일치도 사이의 합치(홍대식, 1985 참조)를 검증하는 상황들이다. 세번째와 네번째의 상황들은 타인(O)의 특성들을 추론하는 상황으로서 타인들에 대한 인지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상황들이다. 마지막의 다섯번째 상황은 P/O관계와 O/P관계의 호오의 상호성(reciprocity)또는 동질성을 검증하는 상황이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세 개의 기본가설들을 검증하면서, 이들 상황에 관련된 몇 개의 부가적 변인들을 포함시켜서 검증하였다.

## 방 법

### 피험자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30명, 보건체육학과 20명, 수학과 20명, 중문학과 38명의 학생들이 본 연구의 첫 번째에서 네번째 상황들에서의 가설검증을 위한 피험자가 되었으며 자료처리에 사용된 피험자의 수는 각 조건당 54명으로 총 108명이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110명의 학생들이 다섯번째 상황에서의 가설검증을 위한 피험자가 되었으며 자료처리에 사용된 숫자는 각 조건당 46명으로 총 92명이었다.

###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인관계상황의 예측"이라는 조사지가 준비되었으며 조사지는 모두 다음의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 태도일치여부에 관한 정보에서 P/O관계의 호오도의 추정과 그 확실성의 판단 : 이 부분은 P와 O간의 태도일치도에 관한 정보에서 P/O관계의 호오도를 추

정하도록 하고 그 추정의 주관적 확실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조사지의 이 부분에서 제시된 상황은 “나와 어떤 사람(O)은 매우(또는 약간) 중요한 1개(또는 3개나 5개)의 문제들(모두)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가 일치(또는 불일치)하고 있다”이었다. 태도대상의 중요성(즉, “매우” 중요한과 “약간” 중요한 것으로 기술됨)이 피험자간 변인으로 취급되어서, 각 피험자는 모두 6개 상황들(즉 3종류의 대상수×태도의 일치여부로 구성됨)을 제시받았다. 이 상황들에 대한 종속측정치는 타인(O)에 대한 호감도의 추정과 이 추정의 주관적 확실성이었다. 호감도의 추정은 “위의 상황에서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 것입니까?”의 질문에 대한 7점(0-6)척도상의 반응으로 평가되었는데, 척도는 매우, 상당히, 약간 및 중간으로 “좋아할 것이다”와 “싫어할 것이다”로 기술되었다. 호감도 추정의 주관적 확실성은 “위에서 한 당신의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느껴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7점(0-6)척도상에서 판단되었는데, 척도는 매우, 상당히, 약간 및 중간에 “확실하다”와 “불확실하다”로 기술되었다. 판단의 주관적 확실성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조사지의 나머지 네 부분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2) P/O와 O/P 호오관계에서 태도 일치도의 추정과 그 확실성의 판단: 조사지의 이 부분은 위와 반대되는 상황에서 P/O(또는 O/P)관계의 호오와 태도일치도간의 합치를 알아보고자 준비되었다. 제시된 상황은 “나(또는 어떤 사람)는 어떤 사람(O)(또는 나)을 매우(또는 약간) 좋아하고(또는 싫어하고)있다”이었다. P/O관계와 O/P관계는 집단간 변인으로 취급되었으며, 각 피험자는 4개의 상황을 제시받았다. 이 상황들에 대한 종속측정치는 P와 O간의 태도일치도의 추정과 그 주관적 확실성이었다. 태도일치도의 추정은 “위의 상황에서, 나와 어떤 사람(O)은 두 사람에게 관련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 태도가 얼마나 일치될 것입니까?”라는 질문과 그에 부수된 7점(0-6)척도의 반응 척도상에서의 평정점수에 의해 측정되었다. 척도는 매우, 상당히, 약간 및 중간 “일치 할 것이다”와 “불일치할 것이다”로 기술되었다. 추정의 주관적 확실성은 앞에서와 같이 측정되었다.

(3) P/O와 O/P 호오관계에서 타인(O)의 특성추론과 그 확실성의 판단: P와 O간의 호오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호오 특성의 추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P와 O간의

관계를 제시하고서 타인의 특성을 조사지에서 제시된 4개의 형용사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P와 O간의 관계는 “나(또는 어떤 사람)는 어떤 사람(O)(또는 나)을 매우(또는 약간) 좋아하고(또는 싫어하고)있다”는 8개의 상황들로 구분되었다. P/O관계와 O/P관계의 요인은 집단간 변인으로 취급되었다. 타인의 특성판단을 위해서 제시된 형용사들은 윤호운(1970)의 자료에서 선택되었으며 선택된 특성들인 “양심적이다”, “조심스럽다”, “무책임하다” 및 “딱딱하다”의 척도가는 각각 +2.26, +.70, -2.25 및 -.70 이었다. 피험자들에게 P와 O간의 호오정도의 정보를 제시하고 나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이 사람(O)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기 쉽겠습니까? 아래의 성격특징 중에서 이 사람(O)의 특성으로서 추측되는 것을 한개만 선택하여 0표 하십시오.” 라는 지시를 주었다. 이 선택에 대한 주관적 확실성의 판단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이었다.

(4) 타인의 한 특성으로부터 다른 특성의 추정과 그 주관적 확실성의 판단: 타인의 한 성격특성에서 다른 특성의 추정의 호오정도의 합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타인에 관한 호오특성들을 제시하고 나서 또 다른 성격특성을 선택하도록 했다. 제시된 상황들은 “나는 어떤 사람(O)이 ‘양심적이다’(또는 ‘낙천적이다’, ‘충동적이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이었다. 여기에서 제시된 형용사들의 호오가는 각각 +2.26, +.56, -.52 및 -2.25 이었다. 이에 대한 종속측정치는 “위의 상황에서, 만일 이 사람이 어떤 또 다른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이 무엇일 것으로 판단됩니까? 아래의 성격특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0표하여 주십시오.” 라는 지시하에서, “정직할 것이다, 조심스러운 것이다, 잔인할 것이다 및 딱딱할 것이다”의 4개의 형용사들이 제시되었으며, 이것들의 호오가는 각각 +2.25, +.70, -2.25 및 -.70 이었다. 선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에서 자극과 반응으로서 제시된 형용사들은 다른 조건에서 역으로 제시되었고 따라서 자극들의 차이는 변인으로 취급되었다. 이 선택에 대한 주관적 확실성의 판단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이었다.

(5) P/O와 O/P관계에서 O/P와 P/O관계의 추론과 그 확실성의 판단: 이 부분은 P/O관계 호오와 O/P관계 호오의 대칭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나(또는 어떤 사람)는 어떤 사람(O)(또는 나)을 매우

(또는 약간) 좋아하고(또는 싫어하고) 있다”는 총 8개의 상황들이 제시되었으며, P/O관계와 O/P관계의 상황은 집단간 변인으로서 취급되어서, 각 피험자는 4개의 상황을 제시받았다. 이에 대한 종속측정치는”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또는 나)은 나(또는 이 사람)를 어느 정도 좋아할 것같이 판단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매우, 상당히, 약간 및 중간의 “좋아할 것이다”와 “싫어할 것이다”로 기술된 7점척도상의 점수이었다. 이 판단에 대한 주관적 확신성의 측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이었다.

조사지들은 모두 교실상황에서 조사되었으며, (1)번에서 (4)번까지가 한 조사지에서 취급되었고 마지막의 것은 별개의 조사지에서 취급되었다.

## 결 과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개 상황에서의 대인관계의 호오도 추정과 타인의 특성의 추정점수들과 그 주관적 확신도 점수들을 변량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다섯 개의 상황들에서의 본 연구의 가설의 지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1) 태도일치여부에 관한 정보에서 P/O관계의 호오도의 추정과 그 확신성 판단 : 태도일치여부, 태도대상수 및 태도대상의 중요성에 따른 P/O관계의 호오도 추

정과 그 확신성 평정의 평균치들이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1(추정의 방향과 극화의 동일성 가설)의 면에서, 태도일치( $\bar{X}=4.89$ )와 태도 불일치( $\bar{X}=2.51$ )의 차이가 유의했으며( $F=1136.52$ ,  $df=1$ ,  $P<.0001$ ), 태도일치여부의 긍정성이나 부정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태도대상수와 일치도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했다( $F=51.57$ ,  $df=2$ ,  $P<.0001$ ). 후자의 태도대상수와 태도일치여부간의 상호작용효과에서 P/O관계호오도 추정치의 평균치들은 태도일치상황의 대상수 5개( $\bar{X}=5.09$ ), 3개( $\bar{X}=3.94$ ) 및 1개( $\bar{X}=4.62$ )에서 평균치가 일정하게 감소되었고, 태도불일치상황의 대상수 1개( $\bar{X}=3.16$ ), 3개( $\bar{X}=2.48$ ) 및 5개( $\bar{X}=1.88$ )에서 평균치가 일정하게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태도 일치가 긍정적 P/O관계를 추정하게끔 만들고 태도 불일치가 부정적 P/O관계를 추정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러한 긍정성-부정성의 수치들이 태도대상수의 증가에 따라 일차성(linearity)을 보였으므로 가설 1은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태도일치여부와 대상수의 상호작용양상은 그림 1에서 처럼 태도일치상황보다도 태도불일치상황에서 더 크게 감소되고 있어서 태도불일치상황에서의 부정성효과(negativity effect)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태도의 중요성변인은 효과가 없었으며 ( $F<1$ ), 중요성과 대상수

<표 1> 태도 일치-불일치 상황들에서의 P/O관계 호오도의 추정 평균치들

대상수 중요성	1개		3개		5개		전체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약간	
태도일치여부							
태도일치	4.69	4.56 (4.62)	5.07	4.81 (4.94)	5.07	5.11 (5.09)	4.89
태도불일치	3.13	3.19 (3.16)	2.54	2.43 (2.48)	1.93	1.83 (1.88)	2.51

\*표 1에서 표 8까지 N=108임

<표 2> 태도 일치-불일치 상황들에서의 P/O관계 호오도의 추정의 확신성 판단의 평균치들

대상수 중요성	1개		3개		5개		전체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약간	
태도일치여부							
태도일치	4.50	4.37 (4.44)	4.76	4.61 (4.69)	4.85	4.85 (4.85)	4.66
태도불일치	3.83	4.00 (3.92)	3.74	3.89 (3.81)	3.91	3.96 (3.94)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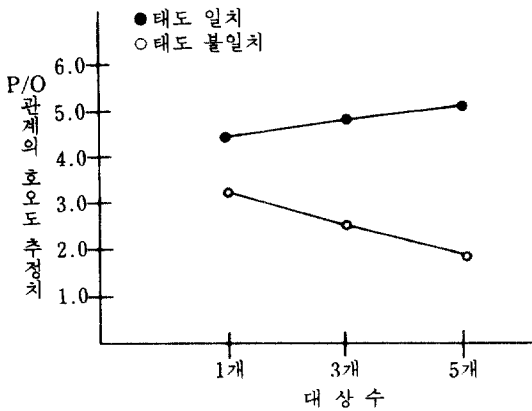


그림 1. 세 종류의 태도대상수에 대한 태도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P/O관계의 호오도 추정치

와 중요성과 일치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리고 중요성, 대상수 및 일치도의 삼원상호작용효과는 유의치 않았다 (모두  $F < 1$  이었음).

가설 2(추정의 확실성에서의 부정성-불확실성가설)의 면에서, 일치상황들( $\bar{X} = 4.66$ )이 불일치상황들( $\bar{X} = 3.89$ )보다 유의하게 높은 확실성 평정치치를 보여서( $F = 95.68$ ,  $df = 1$ ,  $P < .0001$ )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극단화-확실성 증가가설)의 면에서, 대상수가 1개( $\bar{X} = 4.18$ ), 3개( $\bar{X} = 4.25$ ) 및 5개( $\bar{X} = 4.39$ )가 증가될수록 확실성 평정치들이 일정하게 높아졌으므로( $F = 3.38$ ,  $df = 2$ ,  $P < .05$ )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가설 4(긍정성-극화효과 있음과 부정성-극화효과 없음의 가설)의 면에서, 태도대상수와 태도일치여부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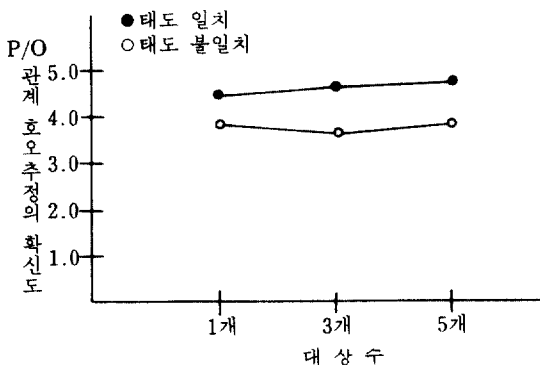


그림 2. 세 종류의 태도대상수에 대한 태도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P/O관계의 호오도 추정의 확실성 평정치

호작용효과는 유의하였으며( $F = 3.27$ ,  $df = 2$ ,  $P < .05$ ), 상호작용양상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긍정적 상황인 태도일치조건에서는 대상수의 증가에 따라 확실성이 일정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부정적 상황인 태도불일치조건에서는 대상수의 증가에 따라 확실성이 거의 증가되고 있지 않았고 (대상수 1과 5간의 차이는 각각 .41과 .02였다), 따라서 가설 4도 지지되었다.

확실성평정치에서 태도대상의 중요성변인은 효과가 없었고( $F < 1$ ), 중요성과 대상수의 상호작용( $F < 1$ ), 중요성과 일치도의 상호작용( $F = 2.41$ ,  $df = 1$ , ns) 및 중요성, 대상수 및 일치도의 삼원상호작용효과( $F < 1$ )도 유의치 않았다.

(2) P/O와 O/P관계에서 태도일치도의 추정과 그 확실성 판단: P와 O간의 관계방향, 관계호오 및 호오 정도에 따른 P와 O간의 태도일치도의 추정과 그 확실성 평정의 평균치들이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1(추정의 방향과 극화의 동일성가설)의 면에서, P와 O간의 호오관계들(좋아함의  $\bar{X} = 4.01$  그리고 싫어함의  $\bar{X} = 2.12$ ) 간의 차이가 유의했으며( $F = 433.84$ ,  $df = 1$ ,  $P < .0001$ ), P와 O간의 호오관계와 호오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F = 77.62$ ,  $df = 1$ ,  $P < .0001$ ). 후자의 효과는 매우 좋아함( $\bar{X} = 4.45$ ), 약간 좋아함( $\bar{X} = 3.56$ ), 약간 싫어함( $\bar{X} = 2.47$ ) 및 매우 싫어함( $\bar{X} = 1.76$ )의 평균치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것은 P와 O간의 관계의 정부에 따라 태도일치와 불일치가 추정되고 P와 O의 관계의 호오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태도 일치도의 추정이 증감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밖에, P와 O간의 관계방향(P/O관계와 O/P관계)의 변인( $F = 2.37$ ,  $df = 1$ , ns), 호오정도( $F < 1$ ), 관계방향과 호오관계의 상호작용( $F < 1$ ), 관계방향과 호오정도의 상호작용( $F = 2.18$ ,  $df = 1$ , ns) 및 관계방향, 관계호오 및 호오정도의 삼원상호작용( $F = 2.18$ ,  $df = 1$ , ns)의 효과들은 모두 유의치 못했다.

가설 2(추정의 확실성에서 부정성-불확실성가설)의 면에서, 좋아하는 관계( $\bar{X} = 4.15$ )가 싫어하는 관계( $\bar{X} = 3.69$ )보다 유의하게 높은 일치도추정의 확실성을 보여서( $F = 29.37$ ,  $df = 1$ ,  $P < .0001$ )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극단화-확실성증가가설)의 면에서, 매우 좋

〈표 3〉 P/O와 O/P 호오관계에서 태도일치도 추정의 평균치들

관계호오 호오정도	좋아함		싫어함		전체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약간
관계방향						
P/O 관계	4.54	3.69 (4.11)	1.94	2.43 (2.19)	3.24	3.06 (3.15)
O/P 관계	4.37	3.44 (3.91)	1.57	2.52 (2.05)	2.97	2.98 (2.98)

〈표 4〉 P/O와 O/P 호오관계에서 태도일치도 추정의 확신성 평균치들

관계호오 호오정도	좋아함		싫어함		전체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약간
관계방향						
P/O 관계	4.33	3.85 (4.09)	3.44	3.59 (3.52)	3.89	3.72 (3.81)
O/P 관계	4.48	3.94 (4.21)	3.93	3.78 (3.85)	4.20	3.86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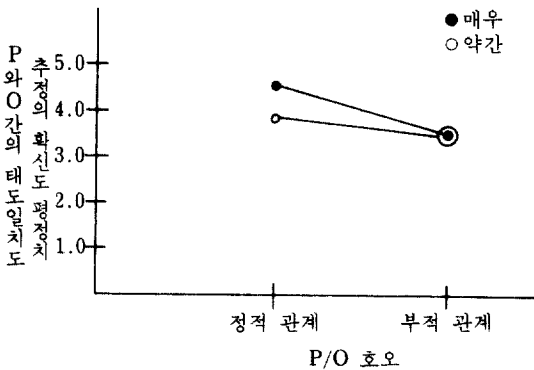


그림 3. P/O관계의 호오와 호오정도에 따른 P와 O간의 태도일치도 추정의 확신도 평정치

아하거나 싫어하는 관계에서의 태도일치도 추정의 확신도( $\bar{X}=4.05$ )가 약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관계에서의 태도일치도추정의 확신도( $\bar{X}=3.79$ )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F=8.71, df=1, P<.01$ ),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가설 4(긍정성-극화효과 있음과 부정성-극화효과 없음의 가설)의 면에서, P와 O간의 호오관계와 호오정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며( $F=8.71, df=1, P<.01$ ), 상호작용 양상은 그림 3과 같다. 좋아하는 관계에서의 태도일치도 추정의 확신성은 호오정도에 따라 차이

가 있었지만(매우 좋아함의  $\bar{X}=4.41$  그리고 약간 좋아함의  $\bar{X}=3.90$ ), 싫어하는 관계에서의 태도일치도 추정의 확신성은 호오정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매우 싫어함과 약간 싫어함에서 태도일치도 추정의 확신성 평균치는 모두 3.69이었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태도일치도 추정의 확신도평정에서 P와 O간의 관계방향( $F=1.43, df=1, ns$ ), 관계방향과 관계호오의 상호작용( $F=1.52, df=1, ns$ ), 관계방향과 호오정도의 상호작용( $F=1.04, df=1, ns$ ) 및 관계방향, 관계호오 및 호오정도의 삼원상호작용( $F<1$ ) 효과들은 모두 유의치 않았다.

(3) P/O와 O/P관계에서 타인(O)의 특성추론과 그 확신성 판단: P와 O간의 관계방향, 관계호오 및 호오정도에 따른 O의 성격특성 추정과 그 확신성 평정의 평균치들이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1(추정의 방향과 극화의 동일성가설)의 면에서, P와 O간의 호오관계들(좋아함의  $\bar{X}=1.24$  그리고 싫어함의  $\bar{X}=-.88$ )간의 차이가 유의했으며( $F=455.35, df=1, P<.0001$ ), P와 O간의 관계호오와 호오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F=65.32, df=1, P<.0001$ ). 후자의 효과는 매우 좋아함에서의 O의 특성추정치( $\bar{X}=1.63$ ), 약간 좋아함에서의 추정치( $\bar{X}=.85$ ), 약간 싫어함에서의 추정치( $\bar{X}=-.46$ ) 및 매우 싫

<표 5> P/O와 O/P호오관계에서 타인(O)의 성격특성 추정의 호오도평균치들

관계호오 호오정도	좋아함		싫어함		전체
	매우	약간	매우	약간	
관계방향					
P/O→O/P	1.92	1.04 (1.48)	-1.91	-1.09 (-1.50)	-.01
O/P→P/O	1.35	.67 (1.01)	-.68	-.16 (-.26)	.38

<표 6> P/O와 O/P 호오관계에서 타인(O)의 성격특성 추정의 확신성평균치들

관계호오 호오정도	좋아함		싫어함		전체
	매우	약간	매우	약간	
관계방향					
P/O→O/P	4.48	4.15 (4.31)	4.46	3.87 (4.17)	4.24
O/P→P/O	3.87	3.67 (3.77)	3.77	3.30 (3.33)	3.55

어함에서의 추정치( $\bar{X} = -1.29$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것은 P와 O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O의 특성에 대한 추정치가 비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1, 즉 P와 O간의 관계의 정부에 따라 O의 특성의 정부가 추정되고 그 추정의 호오정도가 P와 O간의 호오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감된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밖에, P와 O간의 관계방향의 효과가 유의했는데( $F=9.37$ ,  $df=1$ ,  $P<.01$ ), P/O관계의 상황정보에서 보다도( $\bar{X} = -.01$ ) O/P관계의 상황정보에서( $\bar{X} = .38$ ) 더 긍정적인 O의 특성추론이 있었다. 또한 관계방향과 관계호오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으며( $F=74.20$ ,  $df=1$ ,  $P<.0001$ ), 상호작용의 양상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의 두 상황에서 P/O관계에서의 추정이 O/P관계에서의 추정보다 더 극화되고 있다. 즉, P/O관계에서 타인의 특성을 추정하는 것이 O/P관계에서 타인의 특성을 추정하는 것보다 호오관계의 차원상에서 더 극단화됨을 보였다.

O의 축성의 추정에서 P와 O간의 호오정도( $F<1$ ), 관계방향과 호오정도의 상호작용( $F<1$ ) 및 관계방향, 관계호오 및 호오정도의 삼원상호작용( $F<1$ )의 효과들은 유의치 못했다.

가설 2(추정의 확신성에서 부정성-불확신성가설)의 면에서, 좋아하는 관계( $\bar{X} = 4.04$ )가 싫어하는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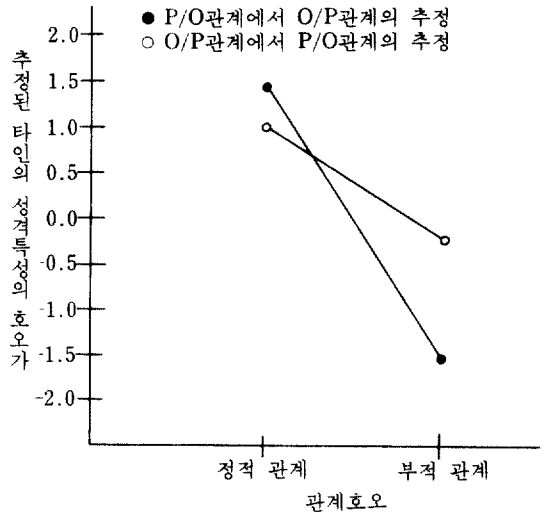


그림 4. P/O와 O/P호오관계에서 O의 특성추정의 호오가

( $\bar{X} = 3.75$ )보다 유의하게 높은 타인의 성격특성 추정의 확신성을 보여서( $F=18.78$ ,  $df=1$ ,  $P<.0001$ ),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극단화-확신성증가가설)의 면에서, P와 O간의 매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관계에서의 O의 특성 추정의 확신도( $\bar{X} = 4.05$ )가 약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관계에서의 O의 특성추정의 확신도( $\bar{X} = 3.75$ )보다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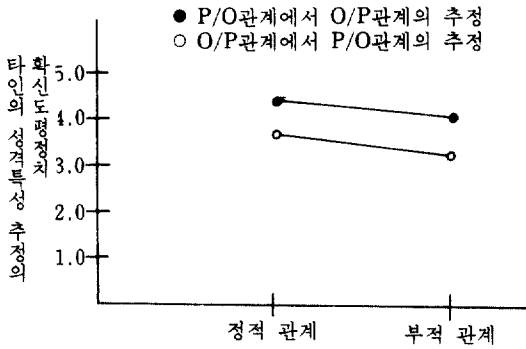


그림 5. 관계의 방향과 관계호오에 따른 타인의 특성 추정의 확신도 평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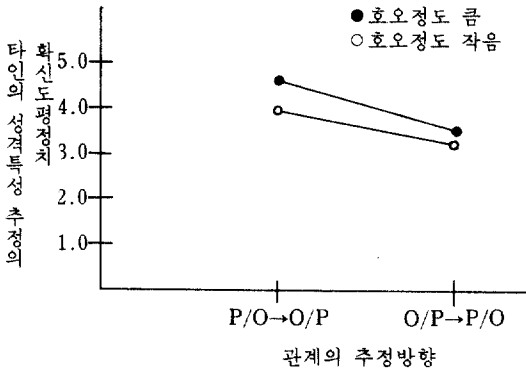


그림 6. 관계의 추정방향과 호오정도에 따른 타인의 특성추정의 확신도평정치

의하게 더 높았으며 ( $F=19.99, df=1, P<.0001$ ),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가설 4(긍정성-극화효과 있음과 부정성-극화효과 없음의 가설)의 면에서, 관계호오와 호오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치 못했으며 ( $F<1$ ), 평균치들간의 차이도 매우 좋아함의 확신도 판단치 ( $\bar{X}=4.18$ )와 약간 좋아함의 확신도 판단치 ( $\bar{X}=3.91$ ) 사이보다도 매우 싫어함의 확신도 판단치 ( $\bar{X}=3.92$ )와 약간 싫어함의 확신도 판단치 ( $\bar{X}=3.58$ ) 사이가 더 컸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받지 못했다.

그밖에, 관계방향의 효과가 유의했는데 ( $F=11.44, df=1, P<.001$ ), P/O관계에서 O의 특성을 추정하는 확신도 ( $\bar{X}=4.24$ )가 O/P관계에서 O의 특성을 추정하는 확신도 ( $\bar{X}=3.55$ )보다 더 높았다. P와 O 간의 관계방향과 관계호오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으며

( $F=4.55, df=1, P<.05$ ), 그 상호작용의 양상은 그림 5와 같이 P/O관계보다 O/P관계가 부적 관계에서의 추정의 확신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관계방향과 호오정도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했으며 ( $F=5.80, df=1, P<.05$ ), 그 상호작용의 양상은 그림 6과 같이 P/O관계에서 추정할 경우에 호오정도에 따른 차이가 컸다. 관계방향, 관계호오 및 호오정도의 삼원상호작용효과는 유의치 못했다 ( $F=2.09, df=1, ns$ ).

(4) 타인(O)의 한 특성에서 다른 특성의 추정과 그 확신도 판단: 타인(O)의 한 특성에서 다른 특성의 추정에서 특성세트(두 조가 집단간 변인으로 사용되었음), 특성의 호오 및 호오정도에 따른 특성의 호오도와 그 확신도 평정의 평균치들이 표 7과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1의 면에서, 긍정적 특성은 다른 긍정적 특성의 추정을 일으켰고 ( $\bar{X}=1.82$ ) 부정적 특성은 다른 부정적 특성의 추정을 일으켰으며 ( $\bar{X}=-.51$ ),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유의했다 ( $F=282.77, df=1, P<.0001$ ). 특성의 긍정성-부정성 요인과 특성의 호오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했는데 ( $F=13.35, df=1, P<.001$ ), 이 상호작용효과는 추론된 특성의 호오가에서 매우 긍정적 특성 ( $\bar{X}=1.98$ ), 약간 긍정적 특성 ( $\bar{X}=1.66$ ), 약간 부정적 특성 ( $\bar{X}=-.16$ ) 및 매우 부정적 특성 ( $\bar{X}=-.85$ )순으로 일정하게 감소됨을 보인다. 따라서 긍정적 특성이 긍정적 특성의 추정을 일으키고 부정적 특성이 부정적 특성의 추정을 일으키며, 특성의 호오도에 비례되는 특성을 일으키는 점에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한편, 세트들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 $F<1$ ), 세트들과 호오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치 못했고 ( $F<1$ ), 세트와 호오정도간의 상호작용 ( $F=8.52, df=1, P<.01$ )과 세트, 호오정도 및 긍정성-부정성 요인들간의 삼원상호작용 ( $F=6.16, df=1, P<.05$ )효과들이 유의했다. 호오정도의 변인은 유의치 못했다 ( $F=1.80, df=1, ns$ ).

가설 2의 면에서, 긍정적 특성에서의 추정 ( $\bar{X}=4.26$ )이 부정적 특성에서의 추정 ( $\bar{X}=3.57$ )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확신성을 보여서 ( $F=60.00, df=1, P<.0001$ ),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의 면에서, 특성의 호오정도가 큰 특성들 ( $\bar{X}=4.21$ )에서 추정하는 것이 작은 특성들 ( $\bar{X}=3.62$ )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더 큰 확신도 평정치들을 보여서 ( $F=$

<표 7> 타인(O)의 한 특성에서 다른 추정의 평균치들

특성호오 호오정도	정적 특성			부적 특성			전체
	매우	약간		매우	약간		
조(세트)							
1조	1.85	1.32	(1.59)	-.92	.25	(-.33)	.63
2조	2.11	2.00	(2.05)	-.79	-.57	(-.68)	.69

<표 8> 타인(O)의 한 특성에서 다른 특성 추정의 확신도평균치들

특성호오 호오정도	정적 특성			부적 특성			전체
	매우	약간		매우	약간		
조(세트)							
1조	4.56	3.65	(4.10)	4.09	3.15	(3.62)	3.86
2조	4.67	4.17	(4.42)	3.52	3.54	(3.53)	3.97

43.49,  $df=1$ ,  $P<.001$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가설 4의 면에서, 특성의 긍정성-부정성과 호오정도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치 못했으며 ( $F=1.85$ ,  $df=1$ , ns),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받지 못했다. 그러나, 확신도 평정치들에서, 매우 긍정적 특성 ( $\bar{X}=4.61$ )과 약간 긍정적 특성 ( $\bar{X}=3.91$ )사이의 차이 (.70)가 매우 부정적 특성 ( $\bar{X}=3.81$ )과 약간 부정적 특성 ( $\bar{X}=3.34$ )사이의 차이 (.37)보다 더 커서 가설 4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5) P/O와 O/P관계에서 O/P와 P/O관계의 추정과 그 확신도 판단: P와 O간의 관계의 추정방향, 관계호오 및 호오정도에 따른 P와 O간의 관계의 호오도 추정과 확신도 평정의 평균치들이 표 9와 표 10에 제시되었다.

가설 1의 면에서, 좋아하는 관계 ( $\bar{X}=4.32$ )와 싫어

하는 관계 ( $\bar{X}=2.23$ )의 추정치들간의 차이가 유의했으며 ( $F=365.00$ ,  $df=1$ ,  $P<.0001$ ), 관계호오와 호오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했다 ( $F=39.72$ ,  $df=1$ ,  $P<.0001$ ). 후자의 상호작용효과는 P와 O간의 관계가 매우 긍정적이었을 경우 ( $\bar{X}=4.71$ ), 약간 긍정적이었을 경우 ( $\bar{X}=3.93$ ), 약간 부정적이었을 경우 ( $\bar{X}=2.53$ ) 및 매우 부정적이었을 경우 ( $\bar{X}=1.92$ )의 순으로 일정하게 평정치들이 감소되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긍정적 P/O관계가 긍정적 O/P관계를 추정하게끔 만들고 부정적 P/O관계가 부정적 O/P관계를 추정하게끔 만들고 관계의 극화의 정도에 비례되는 추정을 일으킨다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관계추정의 호오도에서, 관계추정방향의 효과는 유의했으며 ( $F=29.20$ ,  $df=1$ ,  $P<.0001$ ), P/O 관계에서 O/P 관계의 예측 ( $\bar{X}=2.89$ )보다도 O/P 관계에서 P/

<표 9> P/O와 O/P호오관계에서 O/P와 P/O 호오정도의 추정의 평균치들

관계의 호오 호오정도	정적 관계			부적 관계			전체
	매우	약간		매우	약간		
추정방향							
P/O→O/P	4.43	3.76	(4.10)	1.24	2.13	(1.68)	2.89
O/P→P/O	4.98	4.11	(4.54)	2.61	2.93	(2.77)	3.66

\* 표 9와 표 10의 N=9임

<표 10> P/O와 O/P 호오관계에서 O/P와 P/O 호오점도의 추정의 확신성 평균치들

관계의 호오 호오정도	정적 관계		부적 관계		전체
	매우	약간	매우	약간	
추정방향					
P/O→O/P	4.24	3.72 (3.98)	3.83	3.72 (3.77)	3.87
O/P→P/O	4.63	4.13 (4.38)	3.24	3.89 (3.57)	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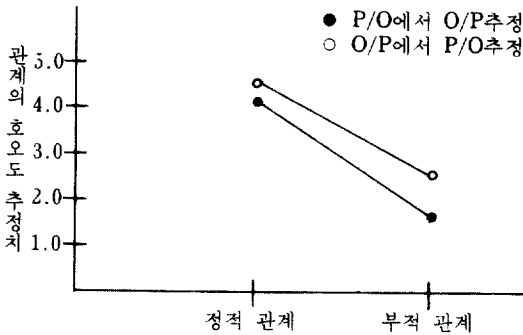


그림 7. 추정방향에 따른 정·부관계에서의 관계호오도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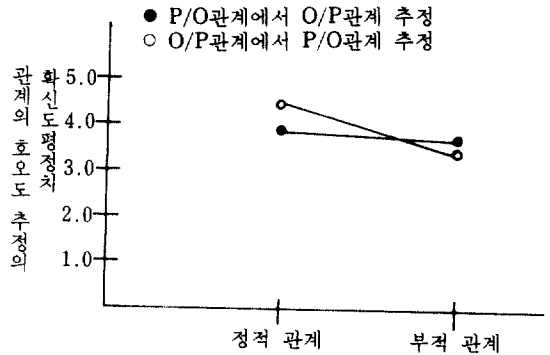


그림 8. 추정방향에 따른 관계호오에서의 관계호오도 추정의 확신도 평정치

O관계의 예측( $\bar{X}=3.66$ )이 더 긍정적이었다. 관계추정 방향과 관계호오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으며( $F=8.57, df=1, P<.01$ ), 그림 7이 보이는 바와 같이 특히 부적 관계로부터의 추정에서 O/P 관계의 추정이 P/O 관계의 추정보다 더 호오정도가 낮았다. 관계추정방향과 호오정도간의 상호작용( $F=3.02, df=1, P<.1.0$ ) 및 관계추정의 방향, 관계호오 및 호오정도간의 삼원상호작용( $F<1$ ) 효과들은 유의치 못했다. 또한 호오정도의 효과도 유의치 못했다( $F<1$ ).

가설 2의 면에서, 관계호오의 효과가 유의했고( $F=17.69, df=1, P<.0001$ ), 좋아하는 관계( $\bar{X}=4.18$ )가 싫어하는 관계( $\bar{X}=3.67$ )보다도 더 높은 추정의 확신도를 보여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의 면에서, P와 O간의 호오정도간의 확신도 평정치들의 차이는 유의치 없었으며( $F<1$ ),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4의 면에서, 관계호오와 호오정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으며( $F=10.38, df=1, P<.01$ ), 좋아하는 관계에서 매우( $\bar{X}=4.43$ )와 약간( $\bar{X}=3.92$ ) 조건들의 차이(.51)가 싫어하는 관계에서 매우( $\bar{X}=3.53$ )

와 약간( $\bar{X}=3.80$ ) 조건들의 차이(.27)보다 더 컸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관계추정의 확신도의 면에서, 추정방향의 효과는 유의치 없었고( $F<1$ ), 추정방향과 호오정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치 없었으며( $F=2.60, df=1, ns$ ), 추정방향, 관계호오 및 호오정도의 삼원상호작용효과도 유의치 못했다( $F=2.31, df=1, ns$ ). 한편, 추정방향과 관계호오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했으며( $F=6.28, df=1, P<.05$ ), 그림 8에서와 같이 P/O관계에서 O/P 관계의 추정에서는 호감관계와 오감관계간에 확신도의 차이가 작았지만 O/P관계에서 P/O관계의 추정에서는 호감관계가 오감관계보다도 더 높은 확신도평정치를 보였다. 호오정도의 효과도 또한 유의치 못했다( $F<1$ ).

## 논 의

두 개의 상호관련될 수 있는 태도와 대인관계들의 추정이나 타인의 특성들의 추정에 관한 가설 1(즉, 추정의 동일한 방향과 극화)은 본연구의 다섯 개의 모든 상황에서 지지받았다. 즉, 태도일치상황에서는 긍정적인

P/O관계가 추정되고 태도불일치상황에서는 부정적 P/O관계가 추정되며, 역으로 긍정적 이거나 부정적 P/O나 O/P관계에서는 태도일치나 불일치가 추정되며, 긍정적 P/O나 O/P관계에서는 타인에 관한 긍정적 특성이 추정되고 부정적 P/O나 O/P관계에서는 타인에 관한 부정적 특성이 추정되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타인의 한 특성에서는 또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타인의 다른 특성이 추정되며, 마지막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P/O나 O/P관계는 마찬가지로 상호적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P/O나 O/P관계의 추정을 일으켰다. 또한 관계나 특성의 극화(polarization)는 추정이나 예측에서 비례되는 극화를 일으켰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상황들에서 타인과의 관계나 타인의 특성들을 추정할 경우에 특정의 관계나 특성은 그와 호오도나 극화에서 비례되는 다른 관계나 특성의 추정을 일으킨다고 결론짓도록 해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Osgood등(1955)의 최대의 단순성(maximal simplicity)의 가정과 일치된다. 태도들이건 타인들에 관한 특성들이건간에, 관련된 두 개의 관계들이나 특성들은 그 평가적 차원상의 방향이나 극화도가 동일하거나 동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관계들이나 인지들의 평가적 차원상의 방향이나 극화의 동질성의 원리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개의 관계들이나 인지들에 주로 적용될 것이다. 예컨대, 어떤 특정의 관계나 특성(예컨대, 정직하다)에 근거해서 다른 한개의 특성만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 특성과 평가적으로 유사한 특성(예컨대, 성실하다)이 추정될 것이다. 그러나, 한 특성에서 몇 개의 특성들이 포함된 한 세트의 특성들이 추정되는 경우에, 추정되는 다른 특성들은 추정확율이 감소되면서 맨처음에는 유사한 특성들이 추정되고 나중에는 비교적 유사치 않은 특성들이 추정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두번째 가설, 즉 사람들이 특정의 관계나 특성에서 다른 관련된 관계나 특성을 추정할 경우에 동일한 방향과 극화의 관계나 특성을 추정하지만, 확신성의 면에서 긍정적 관계나 특성이 부정적 관계나 특성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본연구의 모든 자료들에서 지지받았으며, 이것은 홍대식(1988.1989)의 이전 연구들과 일치된다. 따라서 사회적 인지의 성질의 측면에서, 긍정적 관계나 특성은 단순하고, 안정적이며, 예측의 확신도가 높은 반면에 부정적 관계나 특성은 갈등적

이며, 불안정하며, 예측의 확신도가 낮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Heider의 P-O-X 상황에 관한 균형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들에서 일정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은 균형효과 이외에도 P/O관계의 긍정성(positivity)과 P와 O간의 태도의 일치도(agreement) 효과들이다. 본 연구에 관련해서, 대인관계상황들에서 각 요소(관계의 긍정성이나 태도의 일치도)는 그 자체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만 될 것이다. 대인관계의 상황에 대한 지각들에서는 단순한 도형에 대한 지각과는 달리 포함된 요소들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요소들 각각의 성질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대인적 인지들이나 타인의 특성들에 관한 이론화나 가설화에서는 부정적 관계나 특성이 지니고 있는 갈등적 성질이나 불확실적 성질을 고려해야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성질은 지금까지의 사회적 인지의 분야, 특히 Heider의 인지적 균형이론에서 등한시되어 왔다. 한편, 관계나 특성의 호오정도와 추정의 확신성이 비례된다는 본 연구의 세번째의 가정이 지지받았다. 강한 관계나 극단적 관계가 약한 관계나 덜 극단적 관계보다도 추정의 주관적 확신도가 더 크다는 사실은 우리의 상식적 관찰이나 생각과 부합된다. 그러나 호오정도에 따른 확신도증가의 가설은 본연구의 마지막 상황에서 지지받지 못했다. 앞의 상황들에서 호오정도가 확신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점에서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해석되기 곤란하다. 사람들의 대인관계나 상황에 관한 지각에서 관계의 긍정성이나 부정성과 호오정도를 함께 고려하거나 한 가지만을 고려하게끔 만드는 조건들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네번째 가설은 세 개의 상황들에서는 지지받았지만, 두 개의 상황들에서는 지지받지 못했다. 즉, 가설 4는 태도일치에서 P/O관계의 추정, P/O관계에서 태도일치 여부의 추정 및 P/O관계의 상호성의 추정상황들에서는 지지받았지만, 타인의 특성추정에 관련된 두 상황에서 지지받지 못했다. 그러나 타인의 한 특성에서 다른 특성을 추정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 특성에서 호오정도에 따른 확신도의 차이(.70)가 부정적 특성에서 호오정도에 따른 차이(.37)보다 더 커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이었다. 단지, P/O나 O/P 관계에서 타인의 특성을 추정하는 상황에서만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의 호오정도에 따른 추정의 확신도의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후자의 상황에서 P/O관계

와 O/P관계의 성질차이를 고려함으로써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P/O 관계는 O/P관계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서 P/O관계는 개인이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타인(O)의 특성에 관한 것을 많이 시사해 줄 수 있는 반면에, O/P관계는 이것이 타인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따라서 O에 관한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 아마 P/O와 O/P관계의 이러한 성질이 세번째 상황에서 가설 4를 지지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을 수 있다.

P와 O간의 관계방향의 효과는 두번째 상황에서는 추정의 호오도와 확신도 측정치들에서 주효과와 아울러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나, 세번째와 다섯번째 상황에서는 추정의 호오도와 확신도 측정치들에서 몇 개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들이 일어났다. 추정의 호오도의 측면에서, 세번째와 아울러 다섯번째 상황에서 추정방향의 주효과가 있었다(각각  $P < .01$  과  $P < .0001$ ). 두 상황에서  $P/O \rightarrow O/P$  추정 상황들은 전체 평균치가 중간점쪽으로 나타나서 상호성효과(reciprocity effect)를 보였지만  $O/P \rightarrow P/O$  추정의 상황들에서는 전체 평균치가 정적 부호의 방향으로 나타나서 관대성효과(leniency effect)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들은 개인 자신의 호오를 그대로 교환한다고 추정되지만, 개인 자신은 타인의 부정적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 감정을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가 실험상황의 인위성에 기인되는지, 아니면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관대성에 대한 인상에 특히 주목하였는데에 기인되었는지(즉, 성별효과)는 분명치 않다. 추정방향과 관계호오의 상호작용효과들은 세번째와 다섯번째 상황들에서 모두 유의하였고(각각,  $P < .0001$  과  $P < .01$ ) 상호작용의 양상도 유사하였다(그림 4와 그림 6참조). 상호작용의 형태를 보면, P/O관계에서 O/P관계의 추정에서는 추정이 상호적으로 되어서 정적 및 부적 관계가 대칭적인 정적 및 부적 추정들을 일으키지만, O/P관계에서 P/O관계의 추정에서는 특히 부적 O/P관계에서 중립적인 P/O관계의 추정을 일으켰다. 전체적으로,  $P/O \rightarrow O/P$  관계의 추정은 극단화되었고,  $O/P \rightarrow P/O$  관계의 추정은 부정성이 줄어들면서 중립화되었다.

추정의 확신도의 면에서, 추정방향의 주효과는 다섯

번째 상황에서는 없었으나( $F < 1$ ), 세번째 상황에서는 유의하였으며( $P < .001$ ) P/O관계에서 O/P관계의 추정( $\bar{X} = 4.24$ )이 O/P관계에서 P/O관계의 추정( $\bar{X} = 3.55$ )보다 더 큰 확신도를 보였다. 추정의 확신도에서, 추정방향과 관계호오의 상호작용효과는 세번째 상황과 다섯번째 상황들에서 모두 유의했는데(각각,  $P < .05$ ), 두 상황들에서 P/O관계에서 O/P관계의 추정에서는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간에 차이가 작았던 반면에(각각, .14와 .21), O/P관계에서 P/O관계의 추정에서는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간에 차이가 더 컸다(각각 .44와 .81). 또한 세번째 상황에서 추정방향과 호오정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는데( $P < .05$ ),  $P/O \rightarrow O/P$ 의 추정에서의 호오정도간의 차이(.47)가  $O/P \rightarrow P/O$ 의 추정에서의 호오정도간의 차이(.14)보다 더 컸다. 따라서 P/O관계와 O/P관계는 각각의 O/P관계와 P/O관계의 추정에 있어서, 전자의  $P/O \rightarrow O/P$ 의 추정이 후자의  $O/P \rightarrow P/O$ 의 추정보다도 추정의 호오도에서 더욱 상호적이고, 더 확신도가 크고, 정·부 관계간의 확신도 차이가 적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아마 이러한 효과들은 P/O관계가 개인에 대해 O/P관계보다도 더 직접적인 정보이고, 따라서 더 확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윤호윤 (1970). 한국어 형용사의 호오도측정 :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문리대학보, 1970, 16, 113-116.
- 홍대식 (1985). 삼원적 사회관계에서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의 역할과 대인관계의 과정. 사회심리학연구, 2, 61-93.
- 홍대식 (1988). 삼원적 사회관계 중의 미완성 관계들의 예언에서의 균형효과, 불확실감 및 예언이유들. 사회심리학연구, 4, 197-211.
- 홍대식 (1989). P-O-X 구조들 중의 누락된 관계들의 예측에 관련된 몇 가지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1989, 4, 50-69.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eider, F. (1946). *Attitude and cognitive organiza-*

- tion. *Journal of Psychology*, 21, 107-112.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 Wiley.
- McArthur, L.Z. (1981). What grabs You? The role of attention in impression formation and causal attribution. In E.T. Higgins, C.P. Herman, & M.P.Zanna (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vol. 1). Hillsdale, N.J. : Erlbaum.
- Newcomb, T.M. (1953). An approach to the study of communicative acts. *Psychological Review*, 60, 393-404.
- Newcomb, T.M. (1959). Individual systems of orientation.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Vol. 3). New York : McGraw-Hill.
- Newcomb, T.M. Interpersonal balance. In R.P. Abelson et al (Eds.), *Theories of cognitive consistency: A sourcebook*. Chicago : Rand, McNally.
- Osgood, C.E., Suci, G.J., & Tannenbaum, P.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rice, K.O., Harburg, E., & Newcomb, T.M. (1966). Psychological balance in situations of negative interperson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265-270.
- Taylor, S.E. (1981). The interface of cognitive and social psychology. In J.H. Harvey (Ed.),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Hillsdale, N.J. : Erlbaum.
- Taylor, S.E., & Fiske, S.T. (1975). Point of view and perceptions of caus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439-445.

## **Direction and Subjective Certainty of Inferences about Interpersonal Relations and Other Person's Traits**

**Dae-Shik Hong**

Sunghin Women's University

Four hypotheses which related to the inferences about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ubjective certainty of inferences were tested. The measures of direction of inferences and subjective certainty were obtained from five situations. These situations included inferences of P/O relations from the information of attitudinal agree-disagree, inferences of attitudinal agree-disagree from P/O or O/P relations, inferences of other person's traits from P/O or O/P inferences of other trait from other person's inferences of other trait from other persons's a specific traits, and inferences of O/P or P/O relations from P/O or O/P relations. Hypothesis 1 (same direction and polarization of inference) which dealt with direction and polarization of inference were supported from five all situations. Hypothesis 2 (positivity-certainty and negativity-uncertainty) were supported from five all situations. Hypothesis 3 (polarization of relations-increment of certainty) were supported from four situations and was not supported from last situation. Hypothesis 4 (greater difference in certainty in the positive degrees and no difference in certainty in the negative degrees) was supported from three situations and was not supported from two situations. The last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research method (that is, selection of traits). Inferences of O/P relations from P/O relations were more reciprocated, higher in certainty and smaller in certainty differences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s than inferences of P/O relations from O/P relations.